

## 아이파크 붕괴 중수본 회의 “철저 조사, 책임 꼭 묻겠다”

광주 붕괴사고 ‘중수본’ 출범  
“신속·안전한 수색 역량 결집”  
이용섭 시장 “부실공사와 전쟁”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장(중수본)을 맡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사고 현장에서 첫 회의를 주재한 뒤 “정부가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광주시를 지원하기 위해 중수본을 구성했다”며 “광주시와 함께 신속하고 안전한 수색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6·7면〉  
안 장관은 “타워크레인 해체가 마무리됐지만, 고층부에 쌓인 잔해물이 많아 여전히 전면적인 수색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사고 원인도 철저히 조사해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 등은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사고 수습 과정 전반에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라 중수본을 구성했다.

앞서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부실공사와의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만나 “27일부터 중대 재해 처벌법이 시행되고(지난해 6월) 학동 참사 이후 많은 노력을 했는데 사고가 재발하고 있다”면서 “광주부터라도 부실시공을 끝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부실공사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건축·건설 현장의 공공성을 대폭 강화해 올해를 광주 건설안전 원년으로 만들겠다”면서 “잘못된 건설 관행을 뿌리 뽑고,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갔던 안전 위협요소를 살살이 찾아 내 부실시공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문화전당재단 이사장·사장 임명 철회 요구 확산

광주 시민사회문화단체 회견

아시아문화전당재단 초대 이사장과 초대 사장 선임을 둘러싼 ‘지역 패싱’에 대한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고 있다. 시민사회와 문화단체는 물론 여야 정치권, 광주시, 문화중심도시지원포럼 등 각계가 한 목소리로 이번 인사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정착시민연대, 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사회와 문화예술단체는 24일 오전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임명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초대 이사장과 사장 임명을 발표한 후에 지역사회가 한 목소리로 인사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임명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각계가 이번 인사 파행에 대해 항의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있지만 정작 주무부서인 문체부는 지역 문

화에술계와 광주시의 의견을 수렴해 인사를 했다는 말만 영무세처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문체부의 인사는 문화전당재단 설립 취지와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임명 과정에서 정관에 명시된 기본적인 절차도 무시했고 지역과의 소통 부재 등 문화전당 운영 정상화를 바라는 지역사회의 염원을 무시하는 행태로 규정하고 용인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체부의 행태에 대해 더욱 분노하는 이유는 인사 파행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사업 추진 과정에 누진했던 지역사회에 대한 패싱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조성사업을 문체부 재직시절부터 주도했던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남구)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의정활동을 하는 저도 모르고 광주시정을 책임지는 시장도 몰랐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추천했고 누구에게 평판을 들었는지 모르겠다”며 “문체부에 이 문제에 대해 결자해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광주시당도 19일 논평을 내고 “비전문가 임명 철회”를 촉구했으며, 광주시 또한 18일 대변인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지역사회와 충분한 소통 없이 인사를 전격 단행한 점에 대해 크나큰 실망과 함께 향후 운영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24일 도청 접견실에서 '그린수소산업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효성, 전남 수소산업에 1조원 투자

김영록 지사·조현준 회장  
그린수소산업 육성 업무 협약  
그린수소 97만 생산 추진  
조 회장 “전남 그린에너지 메카로”

전남도와 효성이 국내 최대 수소 산업 프로젝트를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그린수소, 블루수소, 액화수소플랜트, 수소충전 인프라, 풍력 발전, 전력 그리드망 구축 등 수소 생산·판매·유통 관련 전 부문이 포함돼 있다. 효성은 모두 1조원을 투자해 목표, 여수, 순천, 광양, 신안, 영광 등 전남 곳곳에 관련 설비를 설치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효성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에 나선다.

〈관련 기사 3면〉

김영록 전남지사와 조현준 효성 회장은 24일 '그린수소산업 육성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전남도가 신안 앞바다를 중심으로 구상중인 해상풍력 발전을 통해 30만 고용 창출과 그린수소 97만 생산에 앞장서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 지사,

조현준 회장, 이상은 효성 부회장, 현철 효성 중공업 전무, 김신남 에너지산업국장, 조석훈 해상풍력산업과장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지속가능한 미래산업인 그린수소에 주목해 수소 전주기 사업 추진에 앞서 효성의 강한 의지를 높이 평가하고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대규모 해상풍력과 연계해 ‘그린수소 메카’로 도약하려는 전남과 ‘수소 전주기 글로벌 일류 기업’을 꾸리는 효성의 비전을 동시에 실현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약속했다.

조 회장은 “수소 사업을 비롯해 중전기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쌓아온 효성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총동원해 전남도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을 위해 힘을 보탤 것”이라며 “전남을 대한민국 그린 에너지 산업의 메카로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는 답했다. 이어 “전남에 아직 세계 어디에도 없는 수소산업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효성은 중장기적으로 모두 1조원을 투자해 2031년부터 연간 20만톤의 그린수소 생산 공급, 액화수소 생산 플랜트 2개소 및 수소 전용 항만 공급 시설 설치, 부생수소·그린수소 활용 액화수소 증

전소 9개소 구축, 2023년 해상풍력발전 조립 공장 착공 등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전남도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대전환 기조에 발맞춰 기후변화대응과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청정에너지 수소산업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광양제철소와 여수 석유화학단지에서 생산하는 부생수소를 활용해 단계적으로는 그레이·블루수소 산업을 육성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도내 대규모 해상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연계해 전주기 그린수소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해상풍력과 그린수소 생산을 연계하는 ‘에너지 섬’ 개발도 역점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그린수소 메카 도약을 위한 청사진을 담은 ‘전남 수소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청정에너지 대전환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이 계획은 2031년까지 향후 10년간 19조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수소 생산·저장·운송·활용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고, 11만개에 이르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 “힘내라 전라남도, 으랏차차 우리 농수축산물”

남도장터에서 “남도 맛”을 잡았다

“내 손안의 장터”

건강한 한국인의 밥상은 남도장터에서 준비하세요!

검색 남도장터

전라남도 농/수/축산물 종합쇼핑몰

남도장터 농수축산물 주문 방법

다양한 소식도 만나보고, 채팅상담으로 쉽고 편리한 쇼핑하기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070.7816.8510

검색창에 남도장터 검색

카톡 상단 검색창 클릭, 스캐너로 QR코드 스캔, 홈에서 채널 추가

“남도장터”는 전라남도 대표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www.jnmall.kr)입니다.